

조경수생산업의 경영실태와 과제(I)

The Management situation of landscaping tree
cultivating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s

백 을 선(Eul-Sun Baik)
임업연구원 산림자원부 자원계획과

1. 서언

최근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절 높은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을 정비하기 위한 조경수의 수요는 공원녹지,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 공공사업의 확대와 택지개발 등으로 금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수요증대와 더불어 최근에는 지역특성에 맞게 향토수종을 활용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는 등, 조경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경수생산업은 경영악화와 더불어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저성장경제로의 진입과 건설업 종 등 관련 산업의 부진, IMF 체제 돌입으로 말미암은 단기적 수요감소와, 조경수의 가격 상승에 비하여 자재 및 노임

등의 인건비 상승이 이를 훨씬 앞질러 채산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최근 조경수생산업의 경영, 유통, 판매 및 관리부문의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조경수생산업이 개선해 나가야 할 추진과제와 대응방안을 정리하였다.

조경수생산업의 실태파악은 산림청에서 실시한 1994년의 실태조사와, 농림부의 화훼재배현황조사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서로 조사대상자와 조사항목이 상이하여 일관된 생산실태의 파악이 어려웠다. 그래서 재배면적 및 본수 및 재배자의식조사 등을 산림청자료를 이용하였고, 여기에서 조사되지 않은 생산액, 특화도 등은 농림부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2 조경수생산업의 현상

(가) 재배자수

일반적으로 조경수생산업은

토지와 자재, 노동 및 자본을 투입하여 공공·민간용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과 야생화와 같은 녹화식물 등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 즉 생산·유통·판매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1993년 기준으로 조사한 『조경수·분재 재배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목본류 및 자연생 만경류(蔓莖類) 중 조경으로 이용 또는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자가 소비용으로 재배중인 것으로 사업면적이 30평 이상인자(초본, 관엽류, 열대성 수종 제외)”를 조경수재배자로 정의하여 조사하였는데, 대상자는 약 4천명이며, 이들의 직업은 농업이 44.0%, 조경수재배업이 22.6%, 조경공사업이 9.4%, 임업이 2.5%으로서, 조경수재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거나 대부분이 조경수를 단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재배면적

조경수 재배면적은 총 7,117ha로서, 이 중 77%인 5,468ha는 자가농지를 이용하고 있다. 지목은 밭 46.2% (3,288ha), 임야 30.7% (2,183ha)로서 조경수의 대부분은 밭과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포지 확보 및 묘목 기르기가 용이한 군단위 이하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 재배본수

조경수는 재배기간이 비교적 긴 작목으로서 재배면적의 변동이 심한 품목이 아니다. 총 재배본수는 142백만 본으로서, 이중 묘포장에서 양묘중인 어린 나무는 110백만 본으로 전체의 77.8%, 정식된 큰 나무는 31백만 본으로 22.2%에 달하였다. 큰 나무 중에서도 소형은 13.3%, 중형은 7.3%, 대형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 재배수종은 211개 수종이었는데, 철쭉이 전체의 12.2%, 단풍나무가 9.4%, 회양목이 6.2%로써 화목류의 식재본수가 가장 많고, 이어 주목 5.8%, 느티나무 5.4%로서 관상수가 차

지하고 있다. 이들 상위 5개 수종은 총 본수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본수가 많은 25개 수종이 전체 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수종은 50여 개에 불과하다.

화목류는 철쭉, 동백, 영산홍, 목련 등이 주 재배작물로서 철쭉과 동백의 재배면적은 증가한 반면, 영산홍과 목련은 큰 변화가 없었다. 관상수류 중 향나무, 회양목의 면적은 감소하였고, 단풍나무, 느티나무, 주목 등의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향나무와 회양목이 일본식 조경에 사용도가 많은 수종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의 조경기법이 변화되어, 소나무, 은행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등 향토수종의 사용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추구하는 조경양식의 확대에 따른 느티나무의 재배면적 증가가 눈에 띤다.

(라) 조경수의 수요 및 공급 전망

최근 IMF체제 하에서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경업의 특성상 조경수의 수요는 위축될 전망이며, 이러한 단기적 소비변화에 대응하여 생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경수 생산은 토지이용형 산업이라는 특성상 급격한 생산감소가 어렵기 때문에 급격한 생산감소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정부가 지원해 온 투자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조경수의 생산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두순 등(KREI연구보고, 1997)의 화목류(花木類)와 관상수류(觀賞樹類) 수요전망 분석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경수 생산의 위축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회복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표1).

'94산림청조사에서는 조경수 생산자들은 재배면적과 재배본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55.4%, 확대할 계획이다가 35.4%에 달하였고, 앞으로의 수익전망에서도 현 수

표1 조경수의 1인당 수요량 추이 및 전망

구 분	실질GDP 성장률 3%		실질 GDP 성장률 0%	
	화목류(주)	관상수류(주)	화목류(주)	관상수류(주)
1995	0.7	1.0	0.7	1.0
2000	0.7	0.9	0.8	0.8
2004	0.7	1.0	0.8	0.8
2010	0.7	1.1	0.9	0.8

출처: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이두순 외2, 1997.12, KREI연구보고 R367

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재배자의 약 1/3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27.5%에 달하는 등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한편, 조경수 소재개발에 대해서는 국내수종 등이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가 45.7%, 현 수종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30%로서 새로운 수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등의 부진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조경수의 생산실태

(가) 생산의 추이

농림부자료에 의하면, 1996년의 화목류 및 관상수류의 생산액은 약 830억원에 달하는데, 이 자료는 재배면적이 화목류 508.9ha, 관상수류가 1,195.2ha, 도합 1,704.1ha로써 산림청조사면적 7,117ha의 23.9%에 불과하다. 이것을 단순 면적비율로 곱

하여 생산액을 살펴본다면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농림부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화목류 및 관상수류 생산액은 1995년을 피크로 1996년에 약간 감소하고 있다(표2).

한편 조경수생산자들은 관상수보다 재배기간이 짧은 화목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에 불과하다. 생산주체와의 관련에서 보면, 농가·임업이 생산년수가 짧고, 수요량이 많은 화목류를 선호하며,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자본력이 필요한 관상수의 생산은 주로 재배본수가 많은 전문생산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재배방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노지재배가 많으며, 시설재배의 일종인 포트(pot)묘나 콘테이너(container)재배 등은 아직까지 폭넓게 보급되고 있지 않다.

(나) 생산구조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조경수를 생산하는 사업체수와 생산면적의 분포를 재배본수 계층별로 보면(산림청 자료), 사업체수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는 10천 본 이하 재배자 2,200여명이 1,500ha를 차지하는 반면, 15%에 불과한 610명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조경수의 생산은 가족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대다수의 영세한 농림가와 5만본 이상을 재배하는 기업적경영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는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지만, 조경수생산이 토지를 조방적(粗放的)으로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주요생산단지는 지역의 기술특성, 지가와 노임 등 생산요소 가격에 따라 이동·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6년의 화목류 재배면적을 85년에 비교하여 보면 약 1.9배로 급증하였으나, 관상수는 0.90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

표2. 조경수류의 생산액 추이

구분	1971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화 목 류(백만 원)	340	529	1,788	8,459	19,487	19,583	23,349
관상수류(백만 원)	1,364	5,466	12,471	35,356	55,779	67,319	59,731
계(백만 원)	1,704	5,995	14,249	43,815	75,226	86,902	83,080

출처: 김병률외 7인, 1997.12, 원예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방향, KREI 연구보고

표3. 지역별, 품목별 재배면적의 성장(1996/8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화 목 류(배)	1.74	1.25	1.47	0.95	2.46	1.91	3.94	1.66	2.44	1.90
관상수류(배)	0.30	3.31	4.16	1.13	1.29	0.88	4.16	1.44	3.77	0.90

출처: 표1과 동일

역별, 품목별로 재배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화목류는 경북, 전북, 제주가, 관상수류는 경북, 충북, 제주, 강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화목류는 충남, 관상수류는 경기, 전남이 감소되고 있다(표3).

한편, 재배면적의 증가가 지역별, 품목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화목류 및 관상수류의 지역별 특화도(特化度) 변화를 살펴보았다(표4). 특화도를 나타내는 특화계수는, 지역의 화목·관상수류 생산면적이 지역의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국의 화목 및 관상수류 생산면적에서 전국의 경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즉 특화계수란, 전국평균에 비하여 그 지역에서 화목 및 관상수류의 재배면적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역적으로 화목류의 특화도는 제주도가 5.57로 가장

높고, 이어 전라북도, 경기권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관상수류는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북도가 특화되어 있다.

(다) 생산의 특징

우리나라 조경수생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조경수의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생산자들이 재배하기 쉽고 판매하기 좋은 수종이나, 전년도 판매실적 및 유통업자 등의 판매정보를 토대로 한 주먹구구식 수요전망에 입각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둘째, 조경수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규격에 도달할 때까지 화목류는 3~4년, 관상수류에서는 5~10년의 생산기간이 소요된다. 식재하고 나서부터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장기간 자본이 잠겨있게 된다.

셋째, 실생(實生)으로 번식하는 수종은 생장의 개체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동일규격 품질의 대량생산이 곤란하다. 또한 품목별, 품종별로도 종류가 다양하고, 일차 생산품이므로 오랜 동안 비나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 등에 노출되어 있기에 자연적인 손상에 의하여 상품적 가치가 손상되기 쉬우며, 생산량이 변동되기 쉽다.

넷째로 일반농산물생산은 생산, 수확까지를 생산자가 담당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시장유통기구가 판매를 담당하지만, 조경수생산자는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를 모두 담당해야 하므로 각종 판매위험을 개별경영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림청 조사자료에서도, 조경수생산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은 판로개척이 36.8%, 과잉생산 23.7%, 자금부족 16.1%, 노동력 부족 13.3%, 가격하락이 9.2%로서 유통분야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음호에 계속)

표4 지역별 화목류 및 관상수류의 특화도

구 分	화목류		관상수류	
	1985	1996	1985	1996
경기	1.37	1.34	3.22	1.15
강원	0.02	0.02	0.01	0.06
충북	0.57	0.48	0.38	1.88
충남	0.98	0.46	0.87	1.03
전북	1.68	2.15	1.46	2.05
전남	0.99	0.93	0.71	0.64
경북	0.01	0.17	0.08	0.22
경남	0.15	1.14	0.49	1.13
제주	0.63	5.57	0.33	1.91

출처: 표1과 동일